

박물관 소풍

2025년
가을호
VOL. 19

집중

수주 변영로와 수주문학상

깊이

부천 문학의 새로운 시작,
부천신인문학상

꿀팁

문동수 부천시박물관 신임 관장 취임
수주문학관, <2025 수주문학제 '시 그리는 가을'> 성료
부천필벽기념관, 2025 필벽국제심포지엄 개최
부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다르지만 같은 - 말, 삶, 곳 展>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필벽기념관

부천필벽기념관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
Bucheon City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필벽기념관

부천필벽기념관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박물관 관람 안내

운영시간
9:30 ~ 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 1월 1일 / 설·추석 당일 / 법정 공휴일 다음날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은 법정공휴일 휴관)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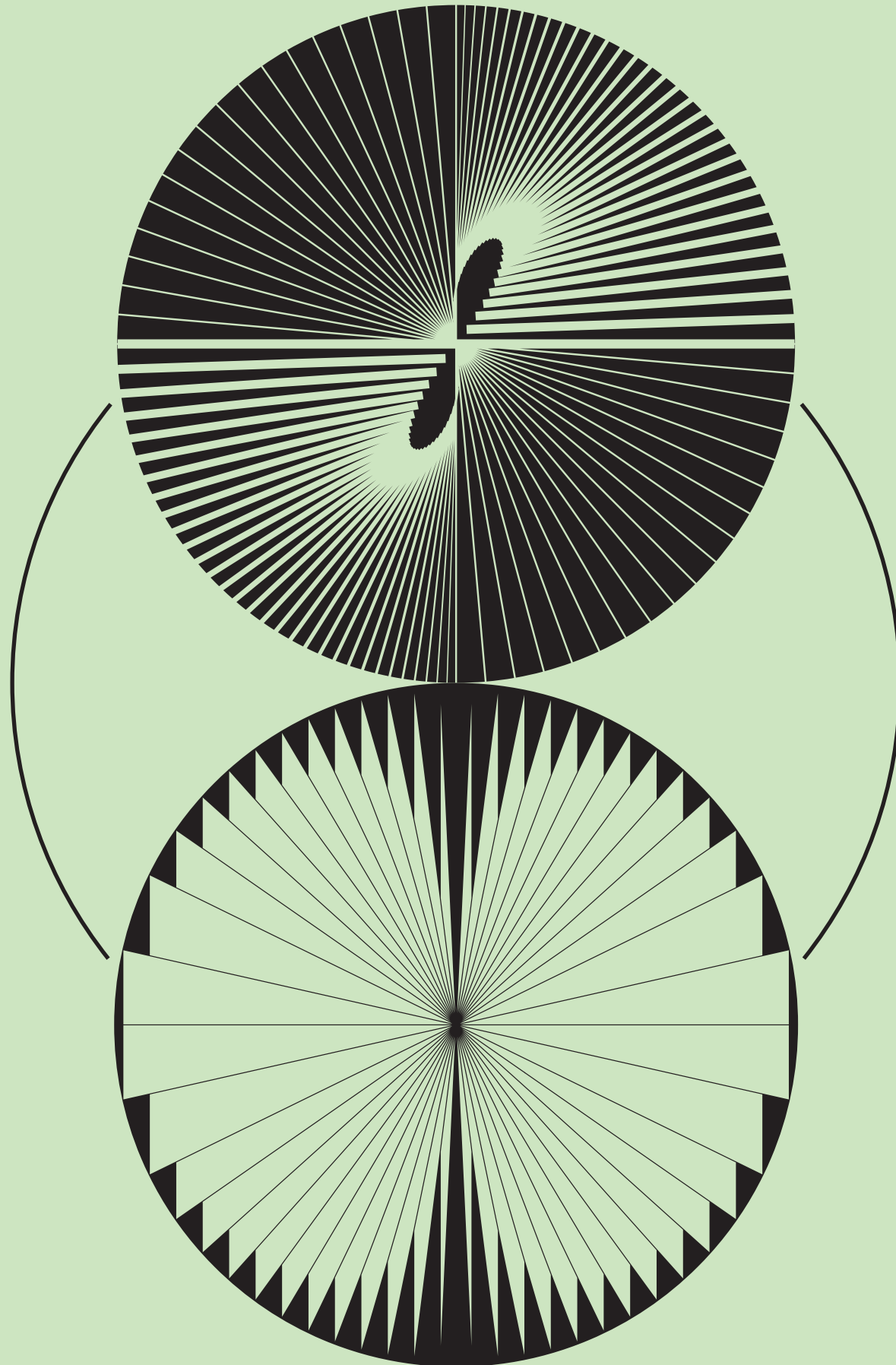
부천시립박물관
(1447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8
TEL. 032-684-9057~8

부천활박물관
(1465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TEL. 032-614-2678

부천펼벽기념관
(1474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14번길 61
TEL. 032-668-7565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1441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8번길 77
TEL. 032-320-6433

www.bcmuseum.or.kr



CONTENTS

04 집중 |
수주 변영로와 수주문학상
양은영(수주문학관 학예사)

06 깊이 |
부천 문학의 새로운 시작,
부천신인문학상
김영주(부천시립박물관 학예사)
최혜리(부천시립박물관)

08 끌림 | 부천시박물관 소식
문동수 부천시박물관 신임 관장 취임
수주문학관,
〈2025 수주문학제 '시 그리는 가을'〉 성료
부천펼벽기념관,
2025 펼벽국제심포지엄 개최
부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다르지만 같은 - 말, 삶, 곳 展〉

10 어울림 | 부천시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소풍 | 2025년 가을호 | 계간지 통권 19호

발행처 |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

발행일 | 2025년 10월 20일

발행인 | 한병환

총괄 | 문동수

기획총괄 | 윤지원

편집기획 | 김재영

편집지원 | 최혜리

디자인 | 아이삭컴퍼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8

전화번호 | 032-684-9057~8

홈페이지 | www.bcmuseum.or.k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천시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수주 변영로와 수주문학상

글 | 양은영(수주문학관 학예사)

2025년 제27회 수주문학상

수주문학상은 수주 변영로의 뛰어난 문학정신과 올곧은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부천시가 제정한 상으로, 서정성·순수성·민족성을 지향하는 전국 공모 형식의 시 부문 문학상이다. 2025년 제27회 수주문학상에는 498명이 응모해 4,061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김보라 작가의 <수박의 정점에서>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왼쪽부터) 부천문화재단 한병환 대표이사, 수상자 김보라 시인, 수주문학제 박희주 운영위원장

제27회 수주문학상 수상자

김보라

필명 한요나. 시와 소설을 쓴다. 2022년, 첫 시집 『연한 블루의 해변』을 출간했다. 장편 소설 『오보는 사과하지 않는다』로 제2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17일의 돌핀』, 청소년 소설 『태양의 아이들』, 『회색에서 왔습니다』 등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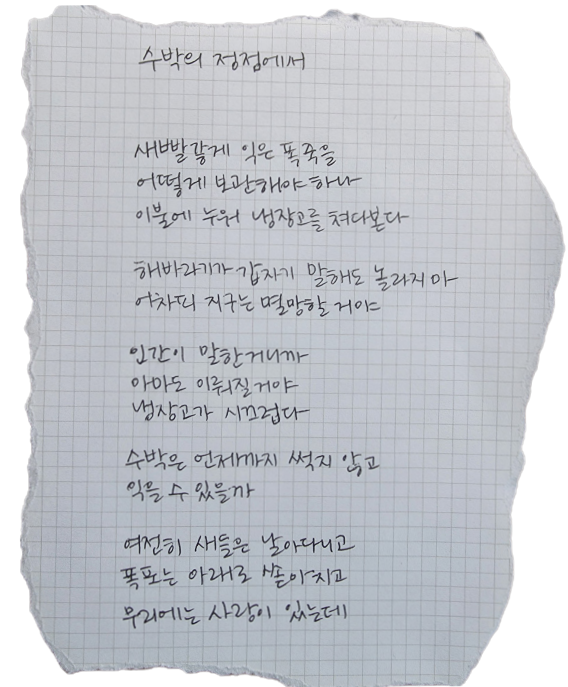
수상 소감

부천에는 저의 어린 시절, 아주 조용하지만, 매일의 놀이를 즐겁게 만들어내던 아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운 집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입니다. 부천에서 유치원을 다녔고,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꽃 이름을 배웠고, 훌라후프와 줄넘기, 그네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나의 세계에 새로운 것들이 반짝거리며 채워지던 곳, 그런 곳이 부천입니다. 그렇기에 수주(樹州) 변영로 선생님의 시 정신을 잇는 '수주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무척 신기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거의 30년 만에 부천에 돌아와서 보니, 그 시절 어머니 아버지는 나보다 서너 살이나 어려셨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이 가능했더니 경이롭습니다. 나는 겨우 나를 보존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청년이라 부르기 민망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기이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행종이 된 기분입니다.

김보라라는 이름과 한요나라는 이름 모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별 자리를 찾으며 밤 산책을 하던 어린이는 뜨거운 지구를 두려워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때로는 경외하는 마음마저 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시를 쓰게 되었나 봅니다.

별이 들지 않는 작은 방에서 쓴 시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별이 잘 드는 방에서 빛나는 시를 쓰는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필사 당선작 <수박의 정점에서>

※ 2025년 제27회 수주문학상 수상작 <수박의 정점에서>의 전문과 수상자의 시 작품집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www.bcmuseum.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 문학의 새로운 시작, 부천신인문학상

글 | 김영주(부천시립박물관 학예사), 최혜리(부천시립박물관)

2025년 제22회 부천신인문학상

부천신인문학상은 2004년부터 문화도시 부천의 문학 발전과 지역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2회를 맞아 더욱 많은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자 응모 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소설, 시, 아동문학, 수필, 극 일반 부문에 112명이 응모했으며, 288편이 접수됐다. 시상식은 11월 14일(금) 오전 10시에 부천시립박물관 통합관 어울림강당에서 개최한다. 오후 5시부터는 부천아트센터 아츠스튜디오에서 '2025 부천 문인의 날'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www.bcmuse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설 부문 | 차미란 <마음의 미로>



전남 완도 출생, 동국대학교 문예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졸업, <계간현대수필> 수필 등단
에세이 [방향을 버리면 바다가 열린다] 발간, 현 <계간현대수필> 편집위원

제 소설이 부천신인문학상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랍고 기뻐했습니다. 마치신으로부터 작가의 길을 허락받은 듯했습니다. 한동안 구름 위를 걷는 듯 동동 떠다니는 발걸음을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향후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설을 끝까지 읽고 당선작으로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글쓰기가 제 삶의 소명임을 알고 더 나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사이신 동국대학교 장영우 교수님, 습작소설 쓰다가 기진맥진해 버린 <석양의 부엉이> 문우들, 우정으로 똘똘 뭉친 <서초수필> 문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 부문 | 강민정 <부레를 태우다>



문학박사, 단국대 졸업, 단국대 前 교양학부 교수

지금 병상에 계시지만 늘 고우신 할머니, 항상 만화처럼 즐겁고 행복한 부부이신 어머니와 아버지, 오래 나를 아껴 지금까지도 곁에 간직해준 나의 고마운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또 지난 시간 내가 교양학부 교수로 몸 담은 나의 모교 단국대에서 함께 했던 많은 교수님들과 얼굴 모를 심사위원분들께도 아스라이 나의 감사한 마음이 가닿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낭만과 기쁨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신 나의 아름다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이 곧 낭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던 그 첫 약속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언제나 소년 같은 남편 정후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엄마' 라고 부르며 안아주는 딸, 어여쁘고 단단한 마음을 지녔을 도윤이에게 간절히 약속한다. 잘 쓰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동문학 부문 | 위향숙 <무지개가 뜰때>



34년간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며 윤리 과목을 가르침. 현재는 동화 창작 동아리 '동글글' 회원들과 함께 동화 집필의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음.

늦게 도전하면서도 동화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시작했습니다. 무식한 초짜의 오만이었습니. 한 문장 한 문장 쓰기가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 첫 문장을 쓰면서부터 여지없이 그 오만함이 깨져 버렸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연애편지처럼 밤에 쓰고 아침에 지워 버리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동화를 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천신인문학상은 그런 저에게 글을 써도 좋다고 허락해 준 따뜻한 선생님 같습니다. 열심히 써보라는 격려처럼 따뜻합니다. 성장판이 남아 있는 어른으로 아직 못다 한 이야기를 동화에 펼치겠습니다. 동심을 살피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부문 | 김선희 <뿌연>



인천 출생,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저서 『주춧돌 빵집』

아린 마음을 부여잡고 썼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핏물의 온도가 느껴질 만큼 아팠습니다. 엄마를 글로 옮기는 건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누를수록 밀려 나오는 기억을 감당하긴 쉽지 않았습니. 차라리 꺼내어 부라리며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쏟아낸 후의 감정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사레가 들러 목구멍에 쓰디쓴 것들이 걸근거릴 만큼 토해냈습니. 만질 수 없음에 더욱 사무치지만 그래도 엄마의 이야기라서 가슴에 넘쳐흐릅니다. 첫 수상을 내 유년을 지낸 부천시와 함께하게 되어 고맙습니. 작은 작품을 큰 자리에서 빛나게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세포인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기쁩니. 글을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될 줄 알았다고 말해준 남편,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는 아빠, 감사드립니다. 늘 나를 지지해 준 동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계신 엄마는 해사하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쓰는 작가가 된다면 더 없겠지만,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늘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극 일반 부문 | 이보리 <몽당연필>



완도 출생, 서강대학교 사학과 졸업
2024년 부천스토리텔링아카데미 2기 졸업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 히든작가(소설 부문)' 당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화가 날 때마다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 모조리 부러뜨리는 아이를 본 적 있습니다. 혼도 내보고, 좋은 말로 달래도 보았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처럼 연필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보여줬던 제 모습이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글입니다. 과열된 경쟁에 기형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쉽게 시들어버린 어른들 사이에 기어이 다른 종(種)의 나무를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나마 서들렸던 그 시절과 화해하고 싶었달까요. 살아온 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뒤늦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던 제가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외로운 글쓰기의 여정을 함께 해준 부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와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 부천 꿈빛도서관 책문화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삶을 두드리는 글을 써나가겠습니다.

※ 2025년 제22회 부천신인문학상 작품집은 부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www.bcmuseum.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동수 부천시박물관 신임 관장 취임

부천문화재단은 문동수 신임 부천시박물관장을 임명했다. 문동수 관장은 2002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박물관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재직 중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국립레이나소피아미술센터에서 전시, 교육, 홍보 마케팅 관련 직무연수를 수행했으며, 이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홍보과장(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2020년), 교육과장(2021년) 등을 역임했다. 문 관장은 전시 기획과 연구 조사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시박물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시 활성화 및 유물 수집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기는 2027년 10월 19일까지 2년이다.

부천시박물관은 현재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 수주박물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등 총 5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동수 신임 부천시박물관장과 조용익 부천시장

수주박물관, <2025 수주문학제 '시 그리는 가을'> 성료

수주박물관은 지난 10월 19일(일) <2025 수주문학제 '시 그리는 가을'>을 개최했다.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문학제가 시작됐으며, 최은경 부천시의원, 윤단비 부천시의원, 박희주 수주문학제 운영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또한 부천시 문화정책과 황승욱 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최숙미 회장,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간호윤 회장, 구자룡 고문, 부천문인회 김해빈 회장, 이오장 고문, 독일신문화재단 양재수 이사장 등 문학계 인사가 함께했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이승하 교수의 시상으로 제27회 수주문학상은 '수박의 정점에서'를 쓴 김보라 시인이 수상했다. '수상자와의 대담'에서는 김보라 시인과 문인들이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부천 문학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고강선사유적공원에서는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부천문인회가 참여한 문학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부천 독립서점 홍보부스에는 원미동 용서점, 심곡동 모알보알, 상동 빛나는 친구들, 상동 화목이네 책방, 송내동 글한스폰 등 지역서점들이 참여했다. 복간된 '수주문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부천펄벅기념관,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개최

'다문화 공존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이 오는 10월 30일(목)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부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부천펄벅기념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작가이자 인도주의자 펄 벅(Pearl S. Buck)의 사상을 계승하고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이다.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펄 벅과 다문화 공존'과 '펄 벅의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부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다르지만 같은 - 말, 삶, 곳 展>

부천시립박물관은 12월 7일(일)까지 기획전시 <다르지만 같은 - 말, 삶, 곳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5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경기도·부천시)으로 진행되며, 2023년 시민 유물 기증 캠페인 '장롱 속 유물을 찾습니다'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공받은 20세기 생활사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됐다. 전시는 ▲'단어'(1부 다르지만 같은, 말) ▲'즐거움'(2부 다르지만 같은, 삶) ▲'풍경'(3부 다르지만 같은, 곳) 세 파트로 구성되며,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험과 감정을 다룬다. 또한 202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협업을 통해 5명의 예술인(김윤정, 김은선, 이우리, 정민주, 조서연)이 직접 참여한 '노포다큐 프로젝트'의 영상을 전시 3부에서 선보인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032-320-6415(부천시립박물관)
부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 www.bcmuseum.or.kr



부천시립박물관 기증 안내

집 또는 사무실 한편에 잠들어 있는 옛날 물건이 있으신가요?
부천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부천시립박물관의 기증 대상입니다.
사진, 문서, 상장, 교복, 물건 등 후대를 위해 남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박물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옛 자료들을 박물관 수장고에서 최대한 원형을 유지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자님의 성함을 담은 명패를 만들고 박물관 벽에 새겨서 후대를 위한 그 마음을 기릴 것입니다.

기증 문의 : 부천시립박물관(032-320-6413) / 이메일 접수 : kimtd@bcf.or.kr

2025년 부천시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부천시립박물관

구분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참가비
토요 박물관	토요박물관 프로그램(11월)	만 6세 ~ 성인	매주 토요일 14:00~16:00	전시해설 및 소장품 연계 체험	7,000원
상설 프로그램	겨울아 부탁해! (11월)	만 6세 ~ 성인	매일 11:00~12:00 14:00~15:00 15:00~16:00	팬시우드 티라이트 캔들 만들기	3,000원
움찬 배움터	그리며 놀자 (11월)	만 6세 ~ 성인	화요일~금요일 15:00 11. 8.(토), 11. 15.(토) 10:30 11. 2.(일), 11. 9.(일), 11. 16.(일) 10:30 11. 2.(일), 11. 9.(일), 11. 16.(일) 15:00	초벌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10,000원

신청 1) 부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www.bcmuseum.or.kr) > 교육·행사 > 교육·체험 > 부천시립박물관 클릭
 2) 예약 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후 결제, 또는 당일 현장 접수(잔여석만 가능)
 문 의 : 032-684-9057~8(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참가비
대나무 활 만들기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11. 8.(토), 11. 15.(토) 10:00~12:00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이수자와 함께 대나무 활 만들기 및 활쏘기 체험	28,000원
어린이 전통 활쏘기	초등학생 및 가족 단위 관람객	11. 1.(토) 10:00~12:00	철릭(무관복)을 입고 전통 활쏘기 체험	3,000원
한지공예 소품 만들기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및 성인	11. 1.(토), 11. 15.(토) 13:00~15:00	전통공예 중 한지를 이용한 소품 만들기	10,000원
편사게임	초등학교 고학년	상시 진행	상설전시 연계 활동지 자율체험	무료

신청 1) 부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www.bcmuseum.or.kr) > 교육·행사 > 교육·체험 > 부천활박물관 클릭
 2) 예약 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후 결제, 또는 당일 현장 접수(잔여석만 가능)
 문 의 : 032-320-6430(부천활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참가비
부천펄벅기념관 탐구생활	누구나	토, 일요일	상설전시실 연계 활동지 프로그램 (현장 접수)	무료
나만의 산수화 족자 만들기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토, 일요일	상설전시실 대표 소장품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전화 접수 및 현장 접수)	무료

문의 032-320-6442(부천펄벅기념관)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구분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참가비
수주문학관	옥토끼 탐구일지	누구나	매주 토, 일요일 10:00~16:00 문화가 있는 날	자기주도 자율체험 프로그램 (현장 접수/단체 체험은 전화 문의)	무료
고강선사유적체험관	히치하이커	누구나	매주 토, 일요일 10:00~16:00 문화가 있는 날	자기주도 자율체험 프로그램 (현장 접수/단체 체험은 전화 문의)	무료

문의 032-320-6435(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cmuseum.or.kr